

# 李鼎輔 時調의 風流地理

김주석\*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정보(李鼎輔)의 풍류지(風流地)와 그 의미(意味)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정보의 풍류지는 ‘호동(壺洞)’과 ‘학탄(鶴灘)’이었다. ‘호동’은 그의 관인생활(官人生活)의 근거지로 종묘(宗廟) 동쪽의 황교(黃橋)와 연지(蓮池)가 있는 마을이었다. ‘학탄’은 그의 귀거래(歸去來) 근거지로 주변에 저자도(楸子島)와 무동도(舞童島)가 있던 곳으로 탄천(炭川)과 양재천(良才川)이 한강(漢江)에서 만나는 학여울이었다.

주목되는 의미는 이정보의 풍류생활(風流生活)이 비록 치사(致仕) 후에 본격화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관직에 봉직할 때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탄풍류(鶴灘風流) 역시 그 시원(始原)이 오래된 것이다.

주제어 : 호동풍류(壺洞風流), 학탄풍류(鶴灘風流)

## 1. 머리말

진동혁은 이정보(李鼎輔, 1693~1766)의 풍류지(風流地)를 “음죽현(陰竹縣) 학탄(鶴灘)”<sup>1)</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죽현’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 이천시(利川市) 장호원읍(長湖院邑)으로 이정보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sup>2)</sup> 이상원은 “학탄은 삼전도(三田渡)에서 가까운 한강변”<sup>3)</sup>이라고 하였

\* 강원대학교 삼척국제어학원 강사.

1) 진동혁, 『영조대 시조작가 이정보 연구-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4·15, 안암어문학회, 1973, 111쪽.

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산수지리(山水地理)를 『대동지지(大東地志)』를 통하여 좀 더 소상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탄(鶴灘)’<sup>4)</sup>은 ‘탄천(炭川)’과 ‘양재천(良才川)’이 ‘한강(漢江)’에서 만나 합수(合水)하는 지점에 형성되었다.

‘한강(漢江)’은 “분원의 북서쪽으로부터 흘러서 좌로 ‘소천’을 지나고 ‘검단산’ 뒤 ‘미음진’을 경유하여 ‘광진’, ‘송과’, ‘삼전도’, ‘학탄’으로 흘러간다. 좌로는 ‘탄천’, ‘양재천’이 지나고, 우로는 ‘왕산천’을 지나며 ‘저자도’를 경유하면서 서쪽으로 흘러간다.”<sup>5)</sup> 하였다.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이 학탄이니 탄천과 양재천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자.

‘탄천(炭川)’은 “남쪽 25리 용인 ‘석성산’에서 발원하여 나와 서류하면서 용인현을 감싼다. 서쪽은 ‘장장천’이 되고 좌측은 ‘광교산’ 물을 지나며 북류는 ‘협천’이 되는데 ‘낙생면’을 경유하여 ‘천호천’이 된다. ‘대모산’의 동쪽을 경유하여 ‘작천’이 되고 ‘삼전도’로 유입된다.”<sup>6)</sup>라고 하였다.

한편 ‘양재천(良才川)’은 “서쪽 30리 관악산 및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합쳐져서 동북쪽으로 흐르는데 양재역을 경유하여 저자도 동쪽으로 유입된다.”<sup>7)</sup>

2) 南有容, 『뇌연집(雷淵集)』 권24, 『判中樞府事李公墓表』, “8월의 어느 길일(吉日)로 날을 정하여 음죽현 조계의 신좌(辛坐)로 된 둔덕에다 장사지내었다.(用八月某甲葬陰竹縣釣堤坐辛之原.)” : 金祖淳, 『풍고집(楓臯集)』 권14, 『大提學李公諡狀』, “음죽현 조계 신방(申方)을 등진 동남향 언덕에 장사지내었다.(葬于陰竹縣釣堤負辛之原.)”.

3)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183~184쪽.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http://kyujanggak.snu.ac.kr>)에서 고지도를 검색하면 3건이 나온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규장각 奎10333-v.1-22, 奎12380-v.1-22]의 13책 4월, 동여도(東輿圖)[규장각 奎10340-v.1-23]의 14책 4월, 대동방역전도(大東方輿全圖)[규장각 奎10341-v.1-21]의 13책 5쪽 등이 그것이다.

5) 『大東地志』 廣州府, “漢江: 自分院之北西流, 左過昭川, 經黔丹之陰漢陰之渡, 爲廣津松坡三田渡鶴灘. 左過炭川良才川, 右過王山川, 經楮子島西流.”

6) 같은 곳, “炭川: 南二十五里, 源出龍仁石城山, 西流環龍仁縣, 西爲莊莊川, 左過光教山之水, 北流爲險川, 經樂生面爲穿呼川, 經大母山之東, 爲鵠川, 入三田渡.”

7) 같은 곳, “良才川: 西三十里源出冠岳山及清溪山合而東北流經良才驛入于楮子島東.”

하였다.

이정보가 그의 호(號)를 ‘삼주(三洲)’라 하고 ‘보객정(報客亭)’이라 한 것은 그의 풍류지와 관련된 일이다. ‘삼주’는 상징적으로는 신선(神仙)이 산다는 세 곳을 뜻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탄 및 주변의 도서(島嶼)를 포함한 그의 관물풍류(觀物風流)를 지시한다.<sup>8)</sup>

또한 ‘보객정’은 ‘임포(林逋)의 임학고사(林鶴故事)’<sup>9)</sup>에서 가져온 것이다. 보객정은 결국 ‘학탄정(鶴灘亭)’으로 이 일대에서의 이정보 자신의 풍류생활을 암시한다.<sup>10)</sup> 그러므로 학탄과 이 일대의 섬들을 무대로 하여 이정보의 풍류가 이루어졌다 하겠다. 자연 이정보의 풍류를 이해함에 특히 두 섬이 부각된다. ‘저자도(楮子島)’와 ‘무동도(舞童島)’이다. 이 논문은 이정보의 풍류지(風流地)를 명시하고 그 의미(意味)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 2. 학탄풍류(鶴灘風流)

다음 시조는 이정보의 풍류지(風流地)를 귀띔한다. 초장 ‘임천(林泉)의 집’은 이정보의 별업(別業)으로 곧 그의 풍류지인 ‘학탄(鶴灘)’이며 ‘학탄정(鶴灘亭)’이다.

- 
- 8) 안대회는 이정보의 별장이 “鶴灘”에 있어 호를 ‘三洲’라고 했다고 하였다. - 안대회, 『조선의 사로잡은 문들』, 한겨레출판, 2010, 184쪽.
- 9) 宋나라의 隱者인 林逋(967~1028)가 孤山에 隱居하면서 처자도 없이 오직 梅花를 심고 雙鶴을 길렀는데 그는 작은 배를 타고 西湖에서 노닐었다. 혹여 손이 그를 찾아오면 童子를 통하여 학 우리를 열어 학들이 날게 하였고 임포는 이로써 손이 온 것을 알고 들어왔다는 고사.
- 10) 다산 정약용의 「집에 돌아와 도미담 주유의 즐거움을 시로 지어 여러 공들에게 보이다」는 이정보의 풍류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임학이 홀연 손님 왔다 하길래(林鶴忽報客) / 물길 따라 느릿느릿 노래하며 돌아가네(遵渚緩歌歸)”라는 시구는 이정보가 自號로 사용한 ‘報客亭’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7, 「既歸追述度迷潭泛舟之樂示諸公」.

大丈夫 | 功成身退호야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를 ㅅ하두고 종 호여 ㅅ 갈리고 甫羅미 질들이고 千金駿駒 알피 미고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ㅅ되 두고 碧梧桐 ㅅ은고에 南風詩 놀리호며 太平  
 烟月에 醉호여 누엇신이  
 아마도 平生 ㅅ을 일이 잇분인가 호노라

- 『해동가요(주씨본)』 388

증장은 이 별업에서 이루어지던 이정보의 풍류 양상이다. “萬卷書를 ㅅ하두고”는 장서(藏書) 취향(趣向), “종 호여 ㅅ 갈리고”는 별서(別墅)<sup>11)</sup>를 통한 전가의식(田家意識), “甫羅미 질들이고 千金駿駒 알피 미고”는 방웅(放鷹) 취향,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ㅅ되 두고 碧梧桐 ㅅ은고에 南風詩 놀리호며”는 酒·色·樂이 어우러진 가악(歌樂) 유흥(遊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가악풍류(歌樂風流)’는 이정보 풍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김중수(金鍾秀, 1728~1799)의 시편들은 이정보의 풍류지와 풍류생활을 증명한다.

김중수는 이정보 사후(死後)에 이정보의 정자(亭子)를 찾아서 그 주변에서 주유(舟遊)를 즐긴다. 그의 시 〈학탄에 있는 이판서 정자에서 운자를 불러 함께 지음〉에는 이정보 학탄풍류(鶴灘風流)의 기억과 흔적이 고스란히 전한다.

물살은 갈라지고 모래알은 작은 섬을 들렀는데  
 숲은 멀리 있고 언덕은 망루를 안았네.  
 주인은 이제 없고  
 나 후인은 또 풍류라네.

11) 田庄이 別業에 ㅅ러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別業은 ‘別墅’의 성격에 가깝다. ‘別墅’는 田庄 부근에 지은 집으로 別業이나 別莊과 비슷하나 農事를 經營한다는 점이 다르다.

뚝 단 그림자는 남은 빛을 머금고  
 거문고 소리 들려오는 이른 가을  
 드디어 맞이하는 밝은 달밤  
 배를 띄워 놀았네.

- 김중수의 <학탄에 있는 이관서 정자에서 운자를 불러 함께 지음><sup>12)</sup>

또렷하게 “학탄에 있는 이관서 정자”라 하였다. 비로소 ‘학탄정(鶴灘亭)’의 존재가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정보가 즐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김중수 역시 가악(歌樂)과 주유(舟遊) 등 비슷한 방식으로 풍류를 재현한다.

“물살은 갈라지고 모래알은 작은 섬을 돌렸는데 / 숲은 멀리 있고 언덕은 망루를 안았네.”에서 ‘학탄정’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잡힌다. 학탄 여울이 자갈에 부딪치며 재빠르게 흐르는 하안(河岸), 모래톱으로 둘러싸인 어느 작은 섬의 전망(展望) 좋은 언덕 위에 마련된 망루(望樓)로서의 정자이다. 게다가 저편에는 숲이 보인다.

학탄정은 굽이치는 학탄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섬의 언덕 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즉 탄천(炭川)과 양재천(良才川)이 한강(漢江)에서 합수(合水)하는 곳 근방이다. 그리고 이 섬은 저자도(楸子島)요 무동도(舞童島)이다. 그런데 작은 섬이라 하였으니 섬 안의 섬이었던 저자도 안의 ‘무동도’에 가깝다. 김중수는 이곳에서의 회억(回憶)을 다음의 운문과 산문 각 일편에 옮겨놓고 있다.

해 긴 여름 산에서 지낼 때 푸나무는 우거지고  
 산 밖 강류는 푸른 물결 넘실댄다.  
 우연히 이웃 노인 좇아 산을 나와 걷는 길  
 학탄정자 어느새 기대고 있다.

12) 金鍾秀, 『夢梧集』 권1, 「鶴灘李判書亭子. 呼韻共賦」, “水拆沙縈嶼. 林迴岸抱樓. 主人今寂寞. 吾輩且風流. 帆影啣殘照. 琴聲入早秋. 會須明月夜. 來作泛舟遊.”

청아한 거문고 한 곡조에 작은 배를 띄우던  
 바로 그때 거울 면 가느다란 티끌 같은 차가움  
 갑작스레 바람 우레 우박이 들이친다.  
 산더미 같은 풍랑에 부딪친다.  
 사공은 배 저어가기 어려워  
 간신히 노 돌려 언덕 머리 댄다.  
 열 걸음 아홉 번은 비칠비칠 개흙에 미끄러지고  
 보리밭 밭두렁에 몸 감추어 곤궁한 채  
 비는 두 눈 때려 눈뜰 수조차 없고  
 바람은 두 다리 버텨 나아갈 수 없게 한다.  
 근심만이 천지에 들어찬 혼돈  
 이 몸의 모양은 거처를 잃는다.  
 손은 술병 권 듯 호흡을 뱉어내고  
 속은 울렁거리고 외투는 습습하고  
 마을 개 짖어대고 마을 아이 손가락질  
 의관은 터지고 찢어지고 진흙물에 뒤범벅  
 방가하다 돌아오는 이 모양새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뜬 듯  
 세간풍파 같도다.

- 김종수의 <4월 29일 江遊에 대한 記><sup>13)</sup>

이 작품에서도 ‘학탄정’이 등장한다. 이 정보가 지내던 그 정자이다. 그러나  
 “해 긴 여름 산”의 ‘산’이 어느 산인지 또 “산 밖 강류”의 ‘강류’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작은 배를 띄우던” 곳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13) 金鍾秀, 『夢梧集』 권1, 『記四月二十九日江遊』, “長夏山居草樹密, 山外江流綠紋潤. 偶逐隣翁步出山. 鶴灘亭子倚超忽. 清琴一曲命小艇. 是時鏡面纖埃淨. 忽然風雷驅雨雹. 白浪如山相蹴迫. 舟人操舟不自由. 辛苦廻棹岸頭泊. 十步九跌浦泥滑. 麥蘖藏身計亦拙. 雨打雙眸擡不舉. 風撐兩脚行不去. 但愁天地入混沌. 此身藐然迷區處. 手持酒瓶張口吸. 要令內醉排外濕. 村犬走吠村童指. 衣冠坼裂和泥水. 放歌歸來日西出. 世間風波有如此.”

있지 않다.

그래도 동선(動線)은 확보된다. 우거하던 ‘산’에서 이정보의 ‘학탄정’으로 이동하였고 곧이어 선유(船遊)에 나서는 것으로 보아 이 세 곳이 꽤 비근(卑近)한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우(風雨)를 피해 돌아오는 길 역시 흥미롭다. ‘언덕 머리’는 처음의 그곳 즉 학탄정 아래이거나 그 근처의 물가이다. ‘개흙’을 밟고 나와 ‘보리밭 받두렁’을 지나고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이 시와 동일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글에서 김종수는 좀 더 상세한 정황을 들려준다.

예전에 내가 광수산 기슭에 우거할 적 일찍이 마을의 동성 숙부 군민씨와 이 봉래 등 여러 사람과 더불어 ‘저자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는데 도중에 큰 비바람을 만났다. 갓은 꺾이고 물이 옷 솔기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 빗줄기 같아서 다급히 하선해서는 포복하여 보리밭으로 들었다. 땅은 진창으로 미끄러워 걸음마다 얼어지고 자빠져서 붉은 진흙에 만신창이였다. 드디어 학탄 인가 입구에 다다랐는데 난간에 한 노인이 있었다. 수염은 구레나룻에 백발이 희었다. 붉은 것에 담근 듯한 뺨을 하였다. 내 모양을 보고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맨발로 나와 맞던 이가 바로 좌백 이언보였다. 나는 드디어 자루 속에서 나와 그를 마주하며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술이 다한 연후에야 돌아왔다. 광수산과 학탄은 인근이어서 이로부터 나와 좌백은 서로 왕래한 것이 자주자주였다. 수년 후 내가 식솔들을 다 데리고 백운산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좌백이 있는 의곡은 고산이 되어버렸지만 산 너머 산기슭으로 서로 왕래하기는 광수산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내가 몽촌분암으로 이거함에 미쳐서는 좌백이 때때로 걸어 걸어 찾아왔다. 오면은 그와 더불어 바둑을 두고 시부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취하면 술기운이 호기에 더하여져 노래 소리는 한층 더 장쾌하였다. 그러나 좌백이 이미 늙어 심히 취하면 왕왕 내 옆에 유뇨하여 자각하지 못하고는 하였다.

- 김종수의 <좌백 이언보의 애사로 서문을 아울러서 씀><sup>14)</sup>

여기서 말하는 '광수산(光秀山)'은 대모산(大母山)의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그 첫 번째 동선은 이리하다. 김종수가 이 산 기슭으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 이정보의 학탄정을 경유하여 저자도 주유에 나섰다가 큰 풍우(風雨)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즈음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사실은 이정보가 학탄에 있던 저자도와 무동도를 주된 풍류처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종수는 저자도로 향하기 전에 먼저 학탄정에 들렀다. 그런데 학탄정은 섬 안에 있었으니 어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즉 '무동도'에서 인근의 '저자도'로 배를 띄운 것이다. 따라서 학탄정의 소재지는 김종수의 이동 경로를 감안할 때에 양재천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길의 지점 끝이 된다.

김종수는 하선하여 학탄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동선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자도로 가다 말고 돌아와 '정박(碇泊)한 곳' 즉 '학탄'으로부터 '보리밭'으로, 다시 '학탄 인가(人家)'로 이동하였다가 이언보(李彦輔)의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은 '보리밭'이 펼쳐지고 '학탄 인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학탄 부근에는 농지(農地)와 농가(農家)가 있었다는 사실이다.<sup>15)</sup>

14) 金鍾秀, 『夢梧集』 권5, 『李佐伯 彦輔 哀辭 并序』, “曩余僑寓光秀山下也, 嘗與里中同姓叔父君民氏李鳳來諸人, 放船向楮子島, 中流遇大風雨, 笠子盡折, 水緣衣縫下注如雨, 遽下船, 匍匐入麥田中, 地淖滑, 步步顛跌, 赤泥滿身, 遂轉入鶴灘人家, 軒中有一老人, 鬚髯皓白, 頰如潰丹, 見余貌狀, 拍手大笑, 跣而出迎, 卽佐伯也, 余遂出囊中酒對飲, 酒盡然後歸, 光秀之於鶴灘隣也, 自是, 余與佐伯相往來數數也, 後數年, 余盡室入白雲山中, 則佐伯歸義谷故山矣, 越山麓相往來, 如在光秀時, 及余移居夢村墳庵, 則佐伯時時徒步來, 來則與之彈碁賦詩唱歌飲酒, 醉則氣益豪, 歌聲益壯, 然佐伯已老矣, 醉甚, 往往遺尿于余側, 而不自覺也.”

15) 이정보의 시조 ‘大丈夫 | 功成身退 ㅎ야~’에서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を ㅼ하두고”, “중 ㅎ여 ㅼ 밧 갈리고” 이 세 가지 풍류 내용이 가능하려면 風流地인 학탄 咫尺에 이정보의 田庄 등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즉 이정보는 여기에 자신의 農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만의 田家意識도 발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田家時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이언보가 살았던 곳이 드러나는데 그곳은 ‘의곡(義谷)’이었다. 그리고 김종수는 나중에 두 번이나 거처를 옮기는데 한 번은 ‘백운산(白雲山)’이고 또 한 번은 ‘몽촌(夢村)’<sup>16)</sup>이다. 결국 앞에서 말한 ‘학탄 인가’는 ‘의곡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광수산과 학탄은 인근”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언보의 거처가 학탄이요 의곡이라면, 이언보의 의곡 집은 학탄과 학탄 인가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탄의 위치는 엄밀히 말하여 탄천 쪽은 아니고 양재천 쪽의 물줄기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물줄기 전반을 ‘학탄’이라 하였고, 이 물줄기 주위의 마을들은 대개 ‘학탄촌(鶴灘村)’으로 통하였다고 본다. 다만 학탄의 요지(要地)는 그 물목인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저자도와 무동도가 있는 절경처(絶景處)였다.



<그림1> 『海東地圖』 『廣州府』(규장각 古大4709-41)[제작 시기: 1750년대 초반]

<그림2> 『輿地圖』 『廣州府』(규장각 古4709-68)[제작 시기: 『해동지도』보다 늦은 시기]

調는 이러한 배경의 産物이라 할 수 있다.

16) 지금의 송파구 오륜동 ‘몽촌토성’이 있는 곳.



〈그림3〉『地乘』『廣州府』(규장각奎15423)[제작 시기: 1776년 이후]



〈그림4〉『廣輿圖』『廣州府』(규장각古4790-58)[제작 시기: 19세기 전반]

『해동지도』(그림1)17)를 보면 김중수의 이야기 상황대로 ‘백운산(白雲山)’과 ‘의곡면(義谷面)’이 마주보고 있다. ‘무동도’만 강 가운데에 있고 ‘저자도’는 사방 물길에 휘둘러 있으며 ‘부래도’는 그 후방이 물에 붙어 있는 듯하다.

『여지도』(그림2) 역시 김중수의 글에 나타난 대로 ‘백운산’ 너머에 ‘의곡면’이 있다. 여기에 그려진 ‘대왕산(大王山)’은 ‘대모산(大母山)’이고 그 왼쪽은 ‘광수산(光秀山)’<sup>18)</sup>이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무동도(舞童島)’가 보이지 않는 채 그 자리에는 ‘부래도(浮來島)’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승』(그림3)은 『해동지도』(그림1)를 닮아 있다. 특징적인 차이점이라면 『지승』(그림3)의 경우 ‘저자도’의 서남쪽 끝을 물에 연결시켜 놓은 점이다. 반면에 『광여도』(그림4)는 『여지도』(그림2)와 유사하다. 저자도와 부래도는 나타내었지만 무동도는 나타내지 않았다. 요점은 이 네 개의 지도 모

17) 〈그림1〉~〈그림4〉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가져온 것이며, 제작 시기 역시 여기서 제공하는 ‘충실’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18) 『대동지지(大東地志)』 광주부(廣州府)를 보면 ‘대모산(大母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안에 ‘광수산(光秀山)’이 언급되고 있는데 “서쪽 30리 북쪽을 ‘광수산’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 『大東地志』 廣州府, “大母山: 西三十里, 北支曰, 光秀山.”

두 ‘저자도’를 일정한 영역(타원) 안에 두면서 동북쪽 모서리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 다른 이들의 풍류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특별히 두드러진 인물은 김창흡(金昌翕, 1653~1722)<sup>19)</sup>이다. 이정보와 김창흡은 가문(家門) 간의 친연성이 깊다. 김창흡은 그의 형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sup>20)</sup>과 함께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문인이었다. 무엇보다도 김창흡은 이정보의 부친인 이우신(李雨臣, 1670~1744)의 선정(善政)에 글을 지어 칭송<sup>21)</sup>한 바 있으며 이천보(李天輔, 1698~1761)의 시를 상찬(賞讚)<sup>22)</sup>한 바도 있다. 이렇듯 김창흡은 이정보는 물론 이천보와도 친연성이 깊다. 이러한 친연성은 풍류 공간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김창흡은 학탄 부근의 저자도와 무동도에서 풍류를 즐기며 많은 한시를 남기고 있으며 이천보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학탄에서 정무(政務)를 수행하던 때가 있다. 이천보의 경우 이정보의 별업을 그 요양처(療養處)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묵은 구용(具容, 1569~1601), 허회(許淮, 1573~미상), 이경석(李景奭, 1595~1671), 김창흡 등 저자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19) 김창흡은 현종 8년(1667) 靜觀齋 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현종 9년(1668) 2월 祖父 金光燦을 곡하였으며 현종 10년(1669) 이단상을 곡하였다. 숙종 12년(1686) 楸子島를 유람하다가 이듬해 8월에는 저자도의 玄城에 정자를 지었다.

20) 이정보의 종제인 李天輔는, 김창협의 문하에 있던 魚有鳳의 문인이다.

21) 俞拓基, 『戶曹參判李公神道碑銘 並序』, 『知守齋集』 권8, “甲午, 除井邑縣監. 南民號難化, 而公治之以呂氏鄉約. 吏憚而民懷. 旣而病辭, 復拜義禁都事, 宗廟令. 戊戌, 爲麟蹄縣監. 減蓼稅戢姦猾. 三淵金公居雪嶽. 馳書賀公. 比之諸葛治蜀云.”

22) 『조선왕조실록』 영조 37년(1761) 1월 5일, 『영중추부사 이천보의 줄기』, “젊어서는 詞章을 익혔는데, 文康公 金昌翕이 그의 詩歌를 보고서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였었다.” ; 한편 이천보는 영조 29년(1753) 奏達하여 김창흡을 資憲大夫 吏曹判書로 높인 바 있다.

한시를, 고지도 등 관련 지도들과 함께 살피면서 저자도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그 위치가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오늘날의 삼성동 위치에 있었으며 그곳에 무동암이 있어서 17세기 무렵까지는 무동도로도 불리었다고 바로잡고 있다.<sup>23)</sup> 이처럼 저자도와 무동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 ‘저자도’로 인식되거나 혹은 반대로 ‘무동도’로 인식되는 등 저자도와 무동도는 호환(互換)되며 불리었던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자도와 독도(蘓島) 또한 이러한 호환 양상을 보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한성부(漢城府)에 “저자도는 ‘독도’라고도 하는데 도성에서 동남쪽으로 15리에 있다. 한강 가에서 나뉘어 그 본류는 ‘삼전나루’로 들고 분류는 ‘신천’ 물으로 모여들어 돌이 된다. 그 중 ‘저자도’에 이르면 섬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신천’과 ‘삼전’의 사이에는 ‘상림’이 있다.”<sup>24)</sup>라고 하였다.

한편 『대동지지(大東地志)』 광주부(廣州府)에는 ‘저자도’를 광주(廣州)의 시점(視點)에서 “저자도는 언주면 강에 있다. 북쪽으로는 ‘살곶이벌’과 접하여 있다. 섬 남쪽으로는 작은 바위가 아이처럼 생겨 ‘무동도’라 부른다. 섬의 남쪽 연안에 ‘봉은사’가 있다.”<sup>25)</sup>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자도’는 때로는 살곶이벌에 붙어 있는 섬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23) 이어서 이종목은 18세기 무렵에 저자도는 무동도와 분리되어 인식되었는데 이때의 무동도는 예전 잠실섬의 일부였다고 말한다. 19세기 후반 무렵 저자도가 독섬 앞쪽의 섬으로 기록된 지도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근대의 기억을 이루었고, 20세기 초반 지도에는 무동도가 삼성동에 있던 원래의 저자도를 지칭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 이종목, 『조선 후기 저자도의 문화사』,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230~262쪽.

24) 『大東地志』 漢城府, “楸子島: 一云蘓島, 都城東南十五里, 漢水分, 而爲歧其正派趨三田渡, 歧流爲新川旱則徒涉潦漲則爲二, 其中爲楸子島至島下合爲一, 新川三田之間有桑林.”

25) 언주면 강에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大東地志』 廣州府, “楸子島: 在彥州江中, 北接箭串坪, 島南小岩如童, 稱舞童島, 島之南岸, 有奉恩寺.”

또 때로는 무동도가 바라보이고 근처에 봉은사가 있는 섬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여 ‘독도’ 쪽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무동도’ 쪽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면서 양쪽 모두 ‘저자도’로 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릇 수중에 있는 것을 섬이라 한다. ‘저자도’, ‘무동도’, ‘독도’를 삼도라 하는데 ‘무동도’만 수중에 있다.”<sup>26)</sup>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세 섬은 분명 분리되어 인식되고도 있었다.

김창흡 역시 저자도와 무동도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저자도와 관련된 시편뿐만이 아니라 무동도와 관련된 시편도 여러 편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명칭도 저자도의 경우 저도(楮島), 저주(楮洲) 등 바꾸어가며 지칭하고 있으며 무동도 역시 무도(舞島), 무주(舞洲)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한편 삼연(三淵)은 독도(蘓島)까지 포함하여 세 섬을 두루두루 주유하였다.

아침노을에 무도는 어두워가고  
저녁노을에 무도는 밝아오네.  
목선은 외로운 그림자를 끌고  
비췌빛은 배와 함께 흐르네.

- 김창흡의 <무도(舞島)><sup>27)</sup>

권만(權萬, 1688~?)과 신광수(申光洙, 1712~1775)는 무동도를 각각 ‘몽동도(蒙童島)’와 ‘몽동도(甓甓島)’로 나타낸다.

26) 金相定, 『石堂遺稿』 권1, 『鷗湖記遊序』, “夫居水中之謂島. 楮子舞童與蘓島謂之三島, 而獨舞童居水中.”

27) 金昌翁, 『三淵集』 권3, “朝霞舞島沒. 夕霞舞島明. 樵舟曳孤影. 彩翠與船平.”

배는 몽동도에 들어 섬 오른쪽에 옮기고  
 정릉의 자옥한 나무들은 푸르름 뒤섞여 견주네.  
 바위는 비단 보에 감추어져 탈 없고  
 화원 신유하는 이때  
 성세의 군신이 하늘가에 모이는데  
 중년 도적과 도둑에 태왕의 능이 흉하게 되었지.  
 유생이 뿌린 눈물 송자도에서  
 오히려 이러한 쓸쓸한 것들이 슬픔을 대신함이 기이하네.

- 권만의 <강행 모듬> 중 ‘정릉을 지나며, 유몽득(유우석)이 송자도  
 이릉의 검은 흙에서 진나라 백기가 불태운 것을 본 시구가 떠올랐다.  
 감회가 있어 지음’<sup>28)</sup>

배 근처에는 봉은사  
 경산에는 돛오름이 가득하다.  
 큰 강 많은 곡절들은  
 외로운 섬 배회함을 닮았다.  
 물 기운은 인심에서 멀고  
 가을바람은 지방에 분다.  
 서로 이끌며 가는 이 흥겨움으로  
 한 번 오르는 백운대.

- 신광수의 <몽동도><sup>29)</sup>

권만은 무동도 근처에 ‘정릉(靖陵)’이 있음을, 신광수는 무동도 가까이에  
 ‘봉은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정릉과 봉은사는 인근 거리에 있다.

28) 權萬, 『江左集』 권3, 『江行諸什\_\_過靖陵. 記劉夢得松滋渡口夷陵土黑見秦灰之句. 有感而作.』, “舟入蒙童島右移. 靖陵煙樹綠參差. 巖藏錦袱猶無恙. 花苑宸遊卽此時. 盛世君臣空際會. 中年寇盜太陵欺. 劉生灑淚松滋渡. 猶是蕭條異代悲.”

29) 申光洙, 『石北集』 권5, 『甌甌島』, “舟近奉恩寺. 京山滿帆來. 大江多曲折. 孤島似徘徊. 水氣人心遠. 秋風郡國開. 相携此去興. 一上白雲臺.”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은 『견한잡록(遣閑雜錄)』에서 “동호 저자도는 절승(東湖楮子島絶勝也)”이라고 하면서 “봉은사는 저자도 서쪽 1리쯤에 있으며(奉恩寺在島西一里許) 압구정은 저자도 서쪽 수 리에 있다(狎鷗亭在島西數里)”라고 하였다.<sup>30)</sup>

특히 신광수가 언급한 ‘무동도’와 심수경의 ‘저자도’ 사이에는 인근의 지형 지물(地形地物)인 ‘봉은사’가 겹쳐진다. 이것은 이 두 섬이 동일한 섬이거나 적어도 섬끼리 지척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잡아 말하여 이정보의 ‘학탄정’은 ‘무동도’<sup>31)</sup>에 있었다.

### 3. 호동풍류(壺洞風流)

이정보의 풍류는 관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학탄(鶴灘)에 거처하였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사이사이 즐겨오던 것이다. 즉 관직에 봉직하고 있을 때에도 가악(歌樂)을 즐겼다. 그의 거택(居宅)에서 이루어진 ‘호동풍류(壺洞風流)’가 그것이다.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집(秋齋集)』 「한섬(寒蟾)」 기사에서 “한섬<sup>32)</sup>은 전주 기생이다. 황교 이상서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노래와 춤을 가르쳤는데 나라 안에 명성이 자자하였다.”<sup>33)</sup> 하였고, 『청구야담(靑邱野談)』 「추월 기생이 노년에 풀어놓은 옛일(秋妓 臨老 說故事)」 기사에서 “이판서 댁에서 피리와 노래 소리가 요란했다”<sup>34)</sup> 하였다. ‘황교(黃橋)’는

30) 沈守慶, 『견한잡록(遣閑雜錄)』.

31) 오늘날 강남구 삼성동에서 코엑스 동편으로 현대위아, 서울의료원 등을 포함한 그 사방 일대로 추정됨. 무동도 아래쪽에는 ‘메꽃이’가 있었다.

32) 桂蟾과 동일 인물.

33) 趙秀三, 『秋齋集』 권7, 「寒蟾」, “寒蟾全州妓. 黃橋李尙書致之家. 教歌舞鳴於國中.”

종묘(宗廟)에서 호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던 다리이고, ‘호동(壺洞)’은 관동(館洞) 아래에 위치하여 있던 한성부 동쪽의 마을이다.<sup>35)</sup>

아름다운 밤에 벗과 술, 옛 지기들 모두 모였네.

송죽이 담 두르고 쓸쓸한 음악을 듣네.

옥계에서 문장을 북돋우고 분향에 고달프다.

한림원에서 임금의 뜻을 살피며 띠는 더디 풀다.

궁달하는 일생, 오로지 도를 향한 신념

안위야 아무리 생각한들 감히 사삿일을 말하라.

독서 천권에 드디어 등용되어

늘 생각은 조정을 염려하고 여전히 때마다 떠받드네.

- 오원의 <학사 조명렴과 옥당에 숙직하며 이정보를 한원에서 만났다.

봉사 한덕일 또한 주원(廚院)에서 왔다. 조출한 술자리를 가져 시를 지음><sup>36)</sup>

앞서 말하였듯이 관직에 있을 때에도 풍류를 즐겼는데 이 시도 그 중 한 근거이다. 이정보의 주변 인물 가운데 특히 동촌파(東村派) 4인 즉 이천보(李天輔, 1698~1761)를 비롯하여 남유용(南有容, 1698~1773), 황경원(黃景源, 1709~1787), 오원(吳瑗, 1700~1740) 등은 이정보의 삶이나 풍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늪어 돌아가 쉬는 너그러운 골짜기

야인들 다투는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쁨.

34)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중)』, 일조각, 1978, 205쪽.

35) 안대회,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2010, 184쪽.

36) 吳瑗, 『月谷集』 권3, 『玉堂直夜 與趙學士伯益明謙 會李士受鼎輔 于翰苑 韓奉事伯威德一 亦自廚院來 小酌拈韻』, “良夜朋樽摠舊知, 禁垣松竹聽寒吹, 封章玉陛焚香罷, 候旨鑿坡解帶遲, 窮達一生惟信道, 安危百慮敢言私, 讀書千卷終須用, 每想虞廷廣載時.”



가없는 청산 지팡이 의지한 채  
 다정한 백구 갓 걸고 기다리네.  
 남은 술은 잘 두었다가 봄날에 마시려오.  
 거침없는 고깃배 버들바람 차다.  
 나의 종형은 경조 공무 많았었지.  
 아득한 생각 책상과 마주하여 쓰는 글.

- 이천보의 <늦봄 농가 마을로부터 학호로 옮겨 우거하는  
 종씨 이정보의 정사에서 두보의 운을 뽑아 읊다><sup>37)</sup>

이 작품은 이정보의 만년 학탄풍류 상황을 방증(傍證)한다. ‘늪어 돌아가 쉬는 골짜기’는 물론이고 ‘백구’와 ‘고깃배’가 상기시키는 곳은 ‘학탄’이다. 결정적으로 詩題에 ‘학호(鶴湖)’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원의 언급대로 이정보의 학탄풍류는 적어도 이천보가 졸한 해인 1761년 이전으로 소급된다.<sup>38)</sup> 한편 『해이수』에 수록되어 있는 이정보의 시조<sup>39)</sup> 또한 적절한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해이수』는 1761년의 편찬물이기 때문이다.

종씨는 이정보를 가리킨다. 그런데 학탄 학호로 옮기기 전에는 ‘농가 마을’에 있었다. 이 농가 마을은 ‘학탄촌(鶴灘村)’으로 여기에 이정보의 소유지(所有地)가 있었다. 학탄정이 정확히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겠지만<sup>40)</sup> 학탄촌에 경제적 기반과 생활적 기반은 훨씬 이전부터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볼 때 이정보의 가악풍류 또한 꽤 이른 시기부터 즐겨오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41)</sup>

37) 李天輔, 『晉菴集』 권3, 『暮春自農村 移寓鶴湖從氏亭舍 拈杜韻』, “老子歸棲一壑寬, 野人爭席作新歡. 青山無限隨扶杖, 白鳥多情待掛冠. 社酒剩將花氣重, 漁舟不怕柳風寒. 吾兄京兆多公務, 遙想文書據案看.”

38)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학회』 2002, 185쪽.

39) ‘물 아래 사공 물 위에 사공 놔들이~’.

40) 이천보의 이 시를 근거로 하면 1761년에 이미 이정보의 ‘학탄정’이 있었을 것.

41) 신경숙은 이정보의 작품이 西堂 李德壽(1673~1744), 冠陽 李匡德(1690~1748)의 경우

호동(壺洞)에서 지내던 속연(俗緣)조차 아스라이  
 상서가 하릴없이 깊은 잠에 든 날  
 시(詩)는 성 밖 소식을 전하며 기러기 밤울음을 들려준다.  
 정자는 호숫가에서 잠을 깨우고 하늘에 학을 푸는 시간  
 요로(要路)에 다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후배  
 바쁜 벼슬은 애초에 맞지 않아 여위어가는 신선이셨지.  
 맑은 날 짐을 버리고 푸른 물가에서 헤아리며  
 형은 자옥한 도롱이를 입고 아우는 뱃전이나 두드릴까.

- 이천보의 <종씨께 드림>42)

우선 이정보의 본거(本居)가 확인된다. 바로 ‘호동(壺洞)’이다. 이 시 역시 이정보의 만년 상황을 보여주는데 호동에서 지내다가 학탄으로 거처를 옮겨서 휴거(休居)하고 있는 이정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더불어 이천보가 살아 있을 때이니 1761년 이전의 상황이다.

또한 이정보의 별서의 정자도 확인되고 있다. 물론 학탄에 있는 정자이다. 더불어 “호숫가”는 ‘학호’ 즉 ‘학탄’이다. 이는 “푸른 물가”나 “뱃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정보가 보내온 시에 이천보가 답시를 썼다. “시(詩)는 성 밖 소식을 전하며 기러기 밤울음을 들려준다.”고 한 부분이 이정보의 시의 내용이다. 이정보가 학탄에 머물며 그 자신의 근황을 시편에 담아 이천보에게 보낸 것이다. 이천보 시의 “성 밖 소식”은 이정보의 시조에서 ‘강호 소식’(『해동가요(주씨본)』 342)에 대응된다.

---

에서처럼 향간에 유행되어 무명씨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 신경숙, 『조선 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176쪽.

42) 李天輔, 『晉菴集』 권3, 『寄從氏』, “宅在壺中淨俗緣, 尙書無事日高眠. 詩傳郭外聞鴻夜, 亭起湖邊放鶴天. 要路只應歸後輩, 熱官曾不合癡仙. 明時莫負滄洲計, 兄着煙蓑弟扣舷.”

이러한 맥락에서 이정보의 ‘기러기’ 소재 시조들<sup>43)</sup>은 학탄에서의 생활의 일단과 거기에 어른거리는 이정보의 심리를 엿보게 한다. “은한(銀漢)은 높하고 기력이 운일씩의” “백발쇠용(白髮衰容)”<sup>44)</sup>과 “기력이 슬피 울고 낙엽(落葉)이 소소(蕭蕭)홀 제”의 “비막비(悲莫悲)”의 마음<sup>45)</sup>, “밤中만 외길억의 소리에 줌 못 일워” 하는 마음<sup>46)</sup>, “소상강(瀟湘江) 들붉은 밤의 돌아오는 저 길억”을 통한 “상령(湘靈)의 고슬성(鼓瑟聲)”과 “지금(至今)에 청원(淸怨)”<sup>47)</sup> 등등이 모두 그러한데 지극히 감상적(感傷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중형 집에는 학이 있고 종제 집에는 매화가 있네.  
지척에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연결해 보네.  
대면하여 먼저 뜻을 맞추어 봄만은 못하나  
달빛 속에 들려오는 몇 개 맑은 눈물.

- 이천보의 <중씨 댁에서 쌍학을 기르는데  
화목을 바라며 희작하여 읊음><sup>48)</sup>

각별히 이천보와, 이정보·이익보 형제는 중부형제(從父兄弟) 사이이며<sup>49)</sup> 정치적으로도 동당(東黨)을 이루며 매우 긴밀한 관계이다. 이 시를 보면 이정보는 집에서 ‘학’을 기르고 이익보는 ‘매화’를 키웠음이 목격된다. 이천

43) 『해동가요(주씨본)』 342, 343, 345, 359, 380 등등.

44) 『해동가요(주씨본)』 343.

45) 『해동가요(주씨본)』 380.

46) 『해동가요(주씨본)』 359.

47) 『해동가요(주씨본)』 345.

48) 李天輔, 『晉菴集』 권3, 「從氏宅養雙鶴, 戲吟求和」, “兄家有鶴弟家梅. 咫尺無緣作好媒. 對面不如先會意. 月中淸唳數聲來.”

49) 黃景源, 『晉菴集』, 『晉菴集序[黃景源]』, “文簡李公所著文集凡八卷. 詩五百四篇. 文一百六十三篇. 其從父兄大學士鼎輔, 從父弟刑曹判書益輔. 屬景源及公內弟右參贊金公陽澤.”

보는 ‘학’과 ‘매화’가 서로 다른 사물, 무관한 사물이지만 둘 다 “달빛 속”의 “맑은 눈물”이라 하면서 이 둘을 동여매어 이치적으로는 서로 닿아 있는 하나임을 말한다.

이 시를 통하여 이정보가 ‘학(鶴)’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호를 ‘보객정(報客亭)’과 ‘삼주(三洲)’로 삼고 별서를 ‘학탄’에 둔 것과도 연관된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의 관물(觀物) 행동(行動)이다. 앞서 이천보의 한시에서 언급되었듯 “속연(俗緣)”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 그리고 “하늘에 학을 푸는” 행위나 “신선”<sup>50)</sup>과 “푸른 물가”로 형상화된 이상(理想)과 은일(隱逸) 지향성 등을 뭉뚱그려 보건대 이는 이정보의 풍류가 내포하는 대은의식(大隱意識)의 발현이다.

고달픈 말에 내 병을 실어  
 먼 먼 옛 일을 돌이키네.  
 노경에 천령에는 비  
 나는 오경 유시에 도착하였지.  
 주막의 등불은 사그라들고  
 봄별은 나뭇가지에 떨어지고 있었지.  
 시편(詩篇)은 돌아갈 시어(詩語)를 묻는데  
 이별 후의 새로운 시제(詩題)들이 몇이었나.

- 이천보의 <입경하여 종씨와 나는 야화><sup>51)</sup>

50) 이정보의 시조는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면모도 나타나는데 『해동가요(주씨본)』 329번에 “平生에 願하기를 이 몸이 羽化하여 / 青天에 소스올라 저 구름을 헛치고져 / 이후는 光明日月을 갈리기에 말리라” 하면서 사대부의 이상 지향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정보의 ‘三洲’라는 호 역시 이러한 태도와 관련이 깊다.

51) 李天輔, 『晉菴集』 권1, 「入京與從氏 鼎輔 夜話」, “倦馬馱吾病, 悠悠返故樓. 路經千嶺雨, 語到五更雞. 村酒燈前盡, 春星樹杪低. 詩篇問歸橐, 別後幾新題.”

선유봉 그림자 멀리 오락가락하고  
 산목들은 가지런히 울며 한 가닥 피리소리 슬퍼하네.  
 땅은 비췌빛 난간에 이르렀건만 시는 경승에 미치지 못하고  
 시간은 적벽을 좇아서 남아돌며 떠 있다.  
 창강이라 하여 반드시 인세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명월은 다만 응하여 내 잔의 의미를 이해하지.  
 바람이슬 깊은 밤 푸름이 가득한 베개  
 꿈속에서 머물러 기다리네, 우의(羽衣)가 나리기를.

- 이천보의 <시월 기망에 종씨 사수 이정보 및 종제 사겸 이익보,  
 덕휘 윤득화, 자겸 정익하, 평일 이형만, 효백 이하술 등과 어울려  
 서호에 뜬 달을 보고 이어 '복과정'에서 묵으며 운을 잡는다.><sup>52)</sup>

앞의 작품은 이정보와 이천보가 갓 출사(出仕)하여 정담(情談)한 풍경과  
 그 회억(回憶)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일찌감치 이정보와 이천보 간  
 에 내밀한 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의 작품은 이정보 주변의 인물군  
 (人物群)을 모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인물들과 더불어 이정보의 풍류 역  
 시 오랜 시간의 축적물임을 알 수 있다.

병석에서 일어난 늦가을  
 님 소식에 옷 떨쳐버리고  
 글줄 봉하여 종현도상소에 팔려 보내고는  
 손님도 사절한 채 숲속 사립에 누워버렸네.  
 한 골짜기 누군가 다투는지  
 외로운 구름처럼 몰아쉬는 숨소리

52) 李天輔, 『晉菴集』 권2, 『十月旣望. 與從氏及從弟士謙 益輔, 尹德輝 得和, 鄭子謙 益河, 李平一 衡萬, 李孝伯 河述. 泛月西湖. 仍宿伏波亭. 拈韻.』, “仙遊峰影遠徘徊. 山木齊鳴一笛哀. 地到翠軒詩後勝. 年從赤壁泛餘廻. 滄江未必非人世. 明月祇應識我杯. 風露夜深清滿枕. 夢中留待羽衣來.”

아마도 문 기대어 기다리듯 걱정하는 마음이지겠지.

내키시지는 않겠지만 돌아옴은 잠시 잊으소서.

- 남유용의 <물가 마을에 임시 거처하는 부제학 이사수께 부치는 간찰><sup>53)</sup>

이정보가 부제학(副提學)이던 시절 남유용이 이정보에게 쓴 서간 성격의 시이다. 이정보가 부제학이던 시절은 1741년<sup>54)</sup>부터 1752년 사이에 다른 관직들을 오가면서 봉직한 바 있다. 그리고 ‘수촌교(水村橋)’에서 ‘수촌(水村)’은 ‘수곽(水廓)’ 즉 ‘물가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며, ‘교(橋)’는 ‘임시 거처지’를 뜻한다. 여기서의 수촌교는 물론 ‘학탄’이다.

이정보가 병중(病中)이었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사료(史料)를 통해 확인하여 보면 이정보는 몇 차례 병세가 위중하였는데 1737년은 ‘부교리’<sup>55)</sup>였고 1749년은 ‘함경감사’<sup>56)</sup>였으며 1757년은 ‘독권관’<sup>57)</sup>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들 안에서만 찾자면 근접하는 해는 1749년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무렵 이정보는 체직을 허락받고 잠시 부제학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

53) 南有容, 『雷淵集』 권4, 『簡寄李副學士受 鼎輔 水村僑居』, “病起秋風晚, 聞君已拂衣, 封章從縣道, 謝客臥林扉, 一壑誰爭所, 孤雲與息機, 惟應倚閭望, 不許便忘歸.”

54)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정보가 부제학으로 처음 승차한 때는 1741년 9월 27일이다. 이 해에 부친 이우신의 병이 위중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비변사등록』 영조 17년(1741년) 8월 12일, 『水原府使 李鼎輔를 교체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55) 『승정원일기』 영조 13년(1737년) 7월 17일, “金應福啓曰, 副校理李鼎輔病勢猝劇, 不得隨駕之意, 既已陳達, 而玉堂上下番俱空, 事甚未安, 修撰俞最基自鄉上來云, 卽爲牌招入直, 何如? 傳曰, 允.”

56) 당시 영의정 金在魯는 “함경감사 李鼎輔는 본래 약질로서 내려간 후 슬픈 일을 당한情理에 신병이 가법지 않고, 또 앞으로 그의 私情이 절박한 것이 있을 것”이라며 이정보의 체직을 주달하고 있다. - 『비변사등록』 영조 25년(1749년) 2월 30일, 『左議政 金在魯 등이 입시하여 병이 위중한 咸鏡監司 李鼎輔의 遞職을 허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57)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년) 9월 10일, “鄭純儉啓曰, 讀券官李鼎輔病勢危重, 昇到闕外, 納牌不進, 推考徵旨, 今方捧入, 而莫重庭試, 不可無主文之人, 更爲牌招, 何如? 傳曰, 允.”

유용이 ‘늦가을’이라고 한 것을 보면 결국은 이때도 아니었다고 하겠다.<sup>58)</sup> 그 럽에도 불구하고 이정보가 부제학 시절에 겪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즉 이러한 몇 가지 단서들을 한데 모으면 이정보가 부제학이던 시절 학탄 별서에서 요양(療養)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탄생활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풍류생활 역시 이와 관련지어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판서께서 이미 구원으로 떠나셨으니  
 인간세계에서는 지공무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네.  
 오늘 늙은 지기는 눈물 흘리는데  
 푸른 해나무 골목에는 가을바람뿐.

- 신광수의 <호동의 이판서를 고향><sup>59)</sup>

‘호곡(壺谷)’은 곧 ‘호동(壺洞)’이다. 이정보의 부음을 듣고 신광수가 지기를 잃은 슬픔에 쓴 시이다. 신광수는 이 시 외에도 이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편의 시를 더 남겨놓고 있어서 이정보 생전에도 교유가 꽤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상 오원, 이천보, 남유용, 신광수 등 이정보 주변의 인물들을 통하여 이정보의 풍류생활이 귀거래 이전에도 분명히 진행되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58) 임명 시집 상 이정보가 가을 무렵에 부제학이던 시기는 1741년, 1746년이다.

59) 申光洙, 『石北集』 권8, 『哭壺谷李尙書鼎輔』, “尙書去已九原中, 不復人間見至公. 今  
 日白頭知己淚. 綠槐門巷盡秋風.”

#### 4. 맺음말

이 논문은 이정보의 풍류지(風流地)와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정보의 풍류지는 ‘호동(壺洞)’과 ‘학탄(鶴灘)’이었다. ‘호동’은 그의 거택 공간이 자리하던 곳으로 종묘(宗廟) 동쪽 황교(黃橋)와 연지(蓮池)가 있는 마을이었다. ‘학탄’은 당시 광주부(廣州府)로 그 주변에 저자도(楮子島)와 무동도(舞童島)가 있던 곳으로 탄천(炭川)과 양재천(良才川)이 한강(漢江)에서 만나는 학여울이었다.

조심할 것은 이정보의 풍류생활이 비록 치사 후에 본격화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오래 전 즉 관직에 봉직 시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탄풍류 역시 그 시원이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음률에 대한 조예가 어느 한순간에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정보의 창작과 향유는 기본적으로 가습(家習)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자 그 자신만의 경험적 시간들이 축적되어온 결과라고 말해야 온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廣輿圖』(규장각 古4790-58)
- 『大東輿地圖』(규장각 奎10333-v.1-22, 奎12380-v.1-22)
- 『大東方輿全圖』(규장각 奎10341-v.1-21)
- 『大東地志』(규장각 古4790-37-1-15)
- 『東輿圖』(규장각 奎10340-v.1-23)
- 『輿地圖』(규장각 古4709-68)
- 『地乘』(규장각 奎15423)
- 『海東地圖』(규장각 古大4709-41)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해동가요(주씨본)』

權 萬, 『江左集』

金相定, 『石堂遺稿』

金祖淳, 『楓臯集』

金鍾秀, 『夢梧集』

金昌翁, 『三淵集』

南有容, 『雷淵集』

兪拓基, 『知守齋集』

申光洙, 『石北集』

沈守慶, 『遣閑雜錄』

吳 瑗, 『月谷集』

李天輔, 『晉菴集』

丁若鏞, 『茶山詩文集』

趙秀三, 『秋齋集』

신경숙,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안대회,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2010.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중)』, 일조각, 1978.

이종묵, 『조선후기 저자도의 문화사』,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진동혁, 『영조대 시조작가 이정보 연구-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  
4·15, 안암어문학회, 1973.

〈Abstract〉

Place of Pungryu(風流) in Lee, Jeong-bo's Sijo(時調)

Kim, Ju-Seok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object of determining place of Lee, Jeong-bo (李鼎輔)'s Pungryu(風流) & its meaning. Place of Lee, Jeong-bo's Pungryu(風流) is Hodong(壺洞) & Haktan(鶴灘). Hodong(壺洞) is located toward east at Jongmyo(宗廟). That place was Hwanggyo(黃橋) & Yeonji(蓮池).

At that time, Haktan(鶴灘) was in Eonju-myeon(彦州面) of Gwangju-bu(廣州府). That place is Hangnyeoul flowing together Tancheon(炭川) & Yangjaecheon(良才川). Jeojado(楮子島) & Mudongdo(舞童島) was neighborhood.

Lee, Jeong-bo's Pungryu-life(風流生活) was already beginning since serve in a government. Therefore HaktanPungryu(鶴灘風流) is also beginning a long time ago.

Key words : HodongPungryu(壺洞風流), HaktanPungryu(鶴灘風流)

이 논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6년 1월 1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